

인도의 투자환경변화와 對인도 해외직접투자(FDI)

박 선 화/이 병 태/이 선 희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 목 차 >

- | | |
|-------------------|---------------------|
| I. 서론 | V. 한국의 對인도 제조업 투자경향 |
| II. 선행연구 | VI. 결론 |
| III. 인도의 외자유치정책 | 참고문헌 |
| IV. 한·인도 CEPA의 발효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한·인도 CEPA(KOR·INDIA CEPA),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경제제도(Economy System), 투자환경(Investment Environment), 한국기업(Korea Company)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인도의 외자유치정책 변화와 한인도 CEPA의 발효가 對인도 해외직접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미 FTA 협상 타결(2007.4)과 한-EU FTA 협상 타결(2009.7)에 이어 2010년 1월 1일 한인도 CEPA가 발효됨으로써 12억 인구라는 거대한 인도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러한 호기를 맞이하여 이 논문은 인도정부의 외자유치정책 변화와 한인도 CEPA의 발효가 한국의 對인도 FDI, 특히 제조업 관련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분석에 의하면, 인도정부는 1991년을 기점으로 국내 상품시장 및 무역, 금융부문을 개방하고 외국자본과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취약한 산업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인도 CEPA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2003년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1991년부터 인도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외자유치정책의 변화와 한인도 CEPA가 맞물려 발생한 시너지 효과로 분석된다.

I. 머리말

BRICs 국가 중 하나인 인도는 ‘제2의 중국’이라 불리며 풍부하면서 저렴한 노동력과 12억이라는 거대시장을 내세우며 외국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개방을 선언한 전환경제체제국가로서 경제성장을 위해 자본과 기술을 외부의 투자를 통해 얻고자 하였다. 90년대 인도 정부는 정부주도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였고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외자기업이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¹⁾을 감소시켜 생산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0년대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당시 인도보다 10년 먼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중국으로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기업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운송비를 절감하고 빠른 개혁개방정책의 실시로 더 우수한 투자환경을 갖추어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중국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때문에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3년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²⁾와 관련된 논의의 시작과 관련 공동연구와 협의가 진행되면서 투자규모의 증가폭이 커졌다. 그리고 한국은 2010년 1월 1일 한·인도 CEPA를 발효함으로써 12억 인구라는 거대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다.³⁾

인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기준 약 1,000달러에 불과하지만 12억이라는 거대인구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 등과 더불어 구매력 평가 기준 GDP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라는 거대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7) 또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8~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에는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세계경기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 비교적 양호한 6.1%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2010년 현재는 7.1%로 경제성장의 회복에 가속이 붙은 상태이다(한국수출입은행 2010, 13-14). 이러한 우수한 거시경제와 거대시장이 인도를 더욱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만드는 요소이다.

인도는 FTA 협상 진행 속도가 느린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 인도와 2007년 협상을 개시한 이후 2008년 10월까지 10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역시 2005년 인도와 공동연구를 선언하였지만 2008년 8월이 되어야 공동연구를 종료한 성과만을 거두었을 뿐 아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인도는 정치권 내 국내 이해관계자의 설득능력 미약으로 협상에 난관을 겪는 편이다(정무섭 2009, 2). 이렇듯 협상이 까다로운 인도와

1) 거래비용이란 각종 투자와 무역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전 시장조사비용, 협상비용, 각종 수수료와 세금 등을 포함한다.

2)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는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무역자유화를 중점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 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FTA를 말한다(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

3) 한-인도 CEPA는 14차례의 협상과 회의를 거쳐 2009년 8월 양국이 서울에서 정식 서명하였다.

성공적으로 CEPA를 맺은 한국은 일본, 중국, EU등의 경쟁국보다 앞서 CEPA를 체결함으로써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신흥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CEPA 발효 전 한국은 인도를 대상으로 수출, 수입 등의 단순 무역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FDI)도 진행해 왔다. 중국이나 다른 동아시아 지역에 비해 그 규모가 미미한 편이지만 이번 CEPA 발효를 계기로 교역과 투자 방면에 대한 증가 등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정책변화와 산업화로 인해 투자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의 제조업 관련 투자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한국 제조업의 對인도 투자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인도정부의 외자유치정책 변화와 한·인도 CEPA의 발효가 한국의 對인도 FDI, 특히 제조업관련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혁개방 이후 인도의 외자유치정책 변화와 이것이 對인도 투자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CEPA에서 제조업 관련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對인도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한국의 對인도 투자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對인도 투자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거래비용이 높으면 생산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즉 우수한 경제제도와 투자환경을 갖춘 지역, 즉 거래비용이 낮게 발생하는 지역에 외국인직접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도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의 변화와 한·인도 CEPA의 발효는 이러한 거래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직접투자가 감소한다는 Dunning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인도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의 변화는 각종 인프라 구축과 노동력의 유연화를 가져와 투자환경의 개선을 야기하고 한·인도 CEPA의 발효는 관세인하와 인도 주위 중동지역 국가로의 수출이라는 시장의 확대를 야기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對인도 투자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II장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와 CEPA 체결로 발생하는 관세제도의 변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제시하고 이들의 이론적 틀을 분석함으로써 본 논문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인도 정부의 개혁개방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떠한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IV장에서는 한·인도 CEPA에 대해 분석하여 이것이 對인도 해외직접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를 알아볼 것이다. V장에서는 수출입은행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한국의 對인도 해외직접투자의 경향과 제조업의 업종별 투자양상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VI장 결론에서는 인도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의 변화와 한·인도 CEPA의 발효는 투자환경개선과 제도의 완화로 거래비용이 감소해 對인도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할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독립 변수는 인도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의 변화와 한·인도 CEPA의 발효이고, 종속변수는 독립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국의 對인도 해외직접투자의 변화이다. 이를 위한 설명변수로는 1991년 개혁개방 시작 이후 인도정부의 경제체제의 변화와 외자유치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인도 CEPA를 분석하여 한국의 對인도 해외직접투자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를 분석할 것이다. 설명변수의 마지막으로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 對인도 직접투자의 경향을 분석하여 향후 對인도 직접투자의 변화를 전망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최근 전환경제체제 국가로의 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환경제체제국가에 대한 연구와 이들 국가와 직접투자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향이다. 전환경제체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환경제체제에 해당하는 특정한 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경제전환의 과정이나 특징들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직접투자와 관련된 연구들도 전환경제체제 국가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직접투자의 유치를 제고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저렴한 노동력만이 직접투자의 유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이 외에도 투자환경의 우수함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감소, 시장의 크기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투자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비용의 크기 여부가 직접투자의 증가와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연구한다. 현재까지 경제체도와 사업 환경에 관련한 거래비용이 직접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Dunning과 Bevan et al., Meyer & Nguyen이 있다.

Dunning은 “제도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국가에게 중요한 입지우위요건이다. 한 국가의 체도가 가지는 범위와 우수함과 그 체도의 구조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 유럽의 전환경제는 제도적 틀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결정요소를 연구하는 데에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방해 비용(hassle cost)’이라고도 불리는 거래비용의 발생을 중요하게 보았다. 피투자국의 경제체도와 투자환경이 발전하면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도의 발전의 정도는 경제활동을 비롯한 직접투자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도발전과 직접투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또한 그는 발전이 미숙한 경제 국가의 우수하지 못한 체제 환경은 일반적으로 발전된 경제 국가보다 직접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한다(Dunning 2004, 1-2).

Bevan et al. 역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결정은 국가와 지역 간의 제도적 조건 차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도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국가의 지역 우위 요건에 완전히 기여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들의 전략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좀 더 우세한 지역으로 선택하고 신흥시장인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신흥시장의 경우 체도의 우수성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전략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그는 또한 경제체도와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접투자를 끌어들이는 데에 경제체도와 투자환경의 발전 정도가 점차 중요한 입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Meyer & Nguyen 2005, 65-66).

Meyer & Nguyen 역시 부실한 체제는 조사, 협상, 집행비용을 증가 시키고 이것은 높은 거래비용과 잠재적인 거래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며 동유럽처럼 불안정한 체제는 성숙된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시장보다 높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제도 환경은 중요한 입지우위요인이 되었다. 효율적 시장은 제도의 지원에 의지하는데 시장 경제에 대한 게임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규칙을 제공할 수 있고 낮은 거래비용 및 정보비용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법률 및 정부 차원의 조치뿐만 아니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비공식적인 제도는 기업의 사업 전략, 운영,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그들의 제도 환경이 글로벌 기업 우위 요건으로 발전한 곳을 찾는다.”

(Bevan, Estrin, Meyer 2004, 45-46)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유럽의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유럽 지역 국가들을 단독으로 연구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직접투자에 있어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다른 지역을 비교·분석한 경우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때문에 본 연구는 유럽 지역에 국한한 연구에서 벗어나 인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투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한 인도의 경제와 투자환경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들의 정책과 경제, 투자의 방향을 분석하는 다른 연구에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의의를 가질 것이다.

Ⅲ. 인도의 외자유치정책

1947년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독립한 인도는 ‘사회주의 경제개발모형’을 도입하여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외채 위기와 국내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국가 재정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1991년 집권한 라오 정부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국내 상품시장 및 무역, 금융 부문을 개방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시장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1990년대를 전후로 한 인도 정부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을 비교하면 <표-1>과 같다.

<표-1> 인도 경제의 개혁 전후 주요 정책 변화

| 구분 | 개혁 전(1991년 이전) | 개혁 후(1991년 이후) |
|----------|---|---|
| 경제 성장 모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지향 자급자족 모델 (네루식 사회주의 경제개발) -유치산업 보호정책 -수입대체 정책 -중화학 산업 진흥정책 -경제, 사회 전반적인 발전 도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지향 시장 경제 모델 -친시장형 -대외 개방 -공공 분야의 민영화 -농업 성장 의존 탈피 |

| | | |
|---------|--|---|
| 투자 및 무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적 무역 자유화(Positive System) · 수입 허가제 · 외환관리제 · 영세 업종 보호 엄격 적용 · 농업 부문 보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무역 자유화(Negative System) · 자동 승인제 및 허가제 · 영세 업종 축소 :100만 달러로 기준 상황 |
| 교역 장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 관세율 인하 |
| 산업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개발법 : 생산품목 및 생산규모, 장소 등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허가제 · 대기업 투자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허가제 폐지(일부 품목 제외) · 대기업 투자 제한 축소 · 법인세율 인하 |
| 노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직적 노동법 적용 -100명 이상 고용업체 해고 제한 -여성 노동자 근로 조건 제한 -복수 노동조합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 개정 추진 |
| 정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중앙 정부 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정부 개입 최소화 |

출처 : 유하상 (2007),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방안』, p. 198.

<표-1>을 살펴보면 인도정부는 내부지향 자급자족 모델에서 벗어나 외부지향 시장경제 모델로 전환하였다. 이것은 인도의 경제와 시장을 친시장형으로 바꾸어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공공분야의 민영화를 피해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 및 무역 방면에서도 제한이 많은 선별적 무역 자유화(Positive System)에서 제한이 포괄적 무역 자유화(Negative System)로 전환하여 사실상 수출입의 자율화를 인정해 주었다. 또한 산업정책 방면에서도 대기업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복잡하고 경직되어있었던 노동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방 정책은 인도가 가진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과 함께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매우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각종 경제정책과 제도의 완화와 유연성을 개선시키는 것은 외자기업의 투자를 간소화시키는 것으로 그 만큼의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거래비용의 절감은 생산시간 단축과 생산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도 정부의 이러한 경제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투자의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프라의 부족은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인프라의 구축은 인도 경제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을 인식한 인도정부는 제조업 투자 장려하기 위해 중국의 정책을 모델로 삼아 2000년대부터 특별경제구역(SEZ : Special Economic Zone)정책을 도입해 부족한 도로망, 전력 등을 공급하였다. 또한 자본재, 원부자재 수입시 관세를 면세하고 중앙 정부의 판매

세를 면세하며 법인세를 감면하였다(오승구 2006, 26). 인프라 환경의 개선과 인력공급의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 확대라는 기반 성숙이 인도 제조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김웅기, 2010). 아래 <표-2>는 인도 신정부의 산업별 정책 방향을 정리한 표이다.

<표-2> 인도 신정부의 산업별 정책방향

| 산업 | 정책방향 |
|-----------|---|
| 전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공급확대를 위해 2012년까지 1,5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 • 3%에 불과한 핵발전 비율 확대를 위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 |
| 인프라 건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개발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5,000억 달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조 5,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 • FDI 기준 완화를 통한 투자 재원조달계획 천명(2009년 10월 예산안) • 현재 GDP의 5% 수준에서 GDP 9% 수준으로 투자 확대 |
| 통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품질 제고와 보급률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730억 달러 투자 계획 • 국영 통신회사의 민영화, 모바일 네트워크, 인터넷 전화 등도 허용 방침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인도를 세계적 자동차 생산기지로 육성할 10개년 계획을 수립 • 자동차 판매세를 대폭 인하할 계획 • 친환경 기술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계획 |
| 철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세를 현행 10%에서 8%로 인하 계획 |
| 석유화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학공업 특례단지 설립정책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적극 지원계획 • 가격인상 규제를 완화할 계획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2009), 『한국의 對인도 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pp. 7-8.

<표-2>를 살펴보면 인도 정부의 외자유치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먼저 전력, 인프라 건설, 통신을 살펴보면 이것은 투자환경의 개선정책으로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전력에 대해 핵 발전 전력을 투자하고 2012년까지 5,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인프라 구축할 계획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것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다. 통신 또한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5년간 73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나머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부문을 살펴보면 이들은 제조업 투자에서 주요 산업들로 인도 정부는 인도를 세계적 자동차 생산기지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자동차 판매세를 인하하는 등으로 자동차 관련 산업의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역시 적극적인 제도 완화와 세금감면으로 외자기업을 유치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인도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완화를 통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자 기업 유치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경제정책과 제도의 완화와 유연성 개선, 제조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각종 세금 감면은 한국의 對인도 해외직접투자에서 제조업 관련 투자를 더욱 유치하는 데에 큰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V. 한·인도 CEPA의 발효

인도의 경제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작은 규모이지만 인도 지역으로의 투자는 중국 등 타 지역의 FDI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분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중동 등 제3국으로의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제조업 관련 대 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 풍부한 노동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유치정책을 선보이는 인도는 한국 제조업의 투자 진출지역으로 매우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인도 CEPA 발효를 통해 한·인도 간 경제협력이 늘어나고 교역이 활성화됨으로써 한국의 對인도 FDI는 더욱 증가될 것임을 알 수 있다.

CEPA의 발효는 인도 제조업의 미진함으로 인해 부품과 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관세철폐의 효과로 부품과 소재의 조달이 용이해 지고 한국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에 탄력을 가하게 되므로 한국 제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제조업 품목들이 이러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 이번 한·인도 CEPA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인도의 제조업 분야 관세 양허안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에 비해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산업연구원, 2009). <표-3>은 한·인도 CEPA의 인도 주요 공산품 양허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3> 한·인도 CEPA의 인도 주요 공산품 양허현황

| 인도 양허 | |
|------------------------|--|
| 양허유형 | 주요품목 |
| E-0 (즉시철폐) | 컴퓨터 주변기기,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축전기, 팩시밀리,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스위치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품, 냉방기 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변성기, 비디오카메라, 소프트웨어, 실리콘웨이퍼, 플러그와 소켓, 오디오테이프, 유선통신기기부품, 화학기계부품 등 |
| E-5 (5년 내철폐) | 가정용 전열기기 부품, 일부 냉연강판, 신문용지, 아연피, 의료용 전자기기, 초음파 영상진단기, 칼라TV 모니터, TV 카메라,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 |
| E-8 (8년 내철폐) | 강반제품, 건설중장비, 다이아몬드 공구, 고철, 과산화수소, 기초유분, 일부 냉연강판, 일부 도금강판, 라디오, 베어링, 보온밥통, 선박, 선철, 시멘트, 원유, 영화영사기, 편직제 의류, 전기로, 카메라, 화장품 등 |
| RED (8년 내 1-5%로 인하) | 일부 자동차 부품, 카스테레오, 공기조절기 부품, 엔진결합발전기, 용접기부품, 석유화학중간원료 등 |
| SEN (10년 내 50% 감축) | 냉장고(200리터 이하), 제트유, 살충제, 비디오튜너, 자동차 기어박스, 일부 접착제 등 |
| EXC (양허제외) | 에어컨, 벤젠, 페놀, 중고의류, 전기식 난방기구, 냉장고(400리터 이상), 일부 냉연강판, 일부 순면직물, 스포츠화, 전자레인지, 승용차, TV 음극선관, 폴리에스터사, ABS 수지 등 |

출처 : 외교통상부(2009), 『한·인도 CEPA 주요내용』, 부록1.

<표-3>을 살펴보면 에어컨과 냉장고(400리터 이상), 전자레인지, 승용차 등은 양허 제외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일부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약 8년을 기다려야 관세 1-5%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냉장고(200리터 이하)와 자동차 기어박스 등의 품목도 관세 50%감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관세철폐에 대한 수출량 증가와 이 품목들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들에 한해서는 수출보다 직접투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운송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수출보다 직접투자가 효과적인 시장공략 수단인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이와 더불어 에어컨, 냉장고, 승용차 등의 판매를 목표로 인도에 먼저 진출한 대기업들의 원활한 부품 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체들의 진출도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조업 부문의 고급인력 부족이나 노무관리의 어려움은 한·인도 CEPA의 발효로 한국의 고급기술자들의 인력이동이 용이해짐으로 인해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부족의 한계는 CEPA의 영향이 건설업이나 서비스업부분⁴⁾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게 됨으로써 제조업 부문과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며 인도 인프라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도 정부에서도 인프라 부족이 지속적인 고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2009/10년 예산안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계획하였으며 특히 전력부문에 있어 전력개발 프로그램에 전년 대비 160% 증가한 208억 루피를 배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프라 부족에 대한 한계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9, 97).

인도의 제조업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인도 CEPA의 발효를 계기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강점을 가진 한국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인도 제조업 시장에 다른 경쟁국들보다 먼저 입성하게 되면서 얻을 효과를 놓쳐서는 안 된다.

V. 한국의 對인도 제조업 투자경향

한국은 국내 인건비 증가 등의 원인으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FDI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표-4>는 2009년 한국의 국가별 FDI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4) 서비스무역의 경우 포지티브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수출이 가능한 부분이 선정되었으며 이 조항에서 최혜국대우 고려에 합의하였고 내국민대우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서비스부문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표-4> 2009년 한국의 국가별 FDI 현황

| 순위 | 국가 명 | 누적투자금액(10억 달러) | 전체대비비율(%) |
|----|------|----------------|-----------|
| 1 | 중국 | 27.3 | 22.3 |
| 2 | 미국 | 27.1 | 22.1 |
| 3 | 홍콩 | 8.2 | 6.7 |
| 4 | 베트남 | 5.1 | 4.2 |
| 5 | 네덜란드 | 3.9 | 3.2 |
| ∴ | ∴ | ∴ | ∴ |
| 15 | 인도 | 1.6 | 1.3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0년 2월)

<표-4> 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은 전체 FDI에서 중국과 미국이 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한국의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3%와 22.1%로 가장 크며 두 국가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 이에 비해 인도는 한국의 전체 FDI에서 1.3%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통해 한국의 對인도 FDI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도에 대한 FDI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다하더라도 인도는 BRICs 국가 중에 한 국가로 급속한 경제 성장과 성장가능성을 가진 신흥경제국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가능성이 높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국가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對인도 FDI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對인도 FDI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5>은 지난 10년 간 한국의 對인도 업종별 투자금액의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표-5> 한국의 對인도 업종별 투자금액 현황

(단위 : 천 달러)

| 업종/연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전체 | 15,048 | 15,378 | 30,066 | 45,399 | 16,893 | 40,773 | 91,132 | 98,490 | 288,881 | 188,505 | 100,091 |
| 제조업 | 12,386 | 8,277 | 6,045 | 20,583 | 3,759 | 29,469 | 81,407 | 81,789 | 256,294 | 134,509 | 81,283 |
| 농업, 임업 및 어업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252 | 300 |
| 도매 및 소매업 | 2,647 | 6,915 | 24,021 | 24,806 | 12,831 | 9,852 | 1,235 | 2,942 | 928 | 11,815 | 15,252 |
| 숙박 및 음식점업 | 15 | 없음 | 없음 | 없음 | 42 | 43 | 112 | 174 | 143 | 16 | 없음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0 | 140 | 없음 | 없음 | 29 | 0 | 7,100 | 1,600 | 105 | 0 | 2 |
| 건설업 | 없음 | 46 | 0 | 10 | 132 | 110 | 315 | 6,430 | 8,321 | 3,415 | 320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100 | 457 | 2,518 | 2,855 | 2,870 | 870 |
| 운수업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2 | 400 | 1,638 | 2,319 | 69 | 521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1,000 | 없음 | 445 | 1,971 | 3,086 | 836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197 | 54 | 227 | 81 | 230 | 134 |

| | | | | | | | | | | | |
|----------------------|----|----|----|----|----|----|----|-----|--------|--------|-----|
|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30 | 571 | 1,550 | 751 | 없음 |
| 교육 서비스업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22 | 106 | 35 | 713 | 124 |
| 금융 및 보험업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14,147 | 30,080 | 없음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132 | 700 | 450 |

※ 2009년 통계는 2009년 6월까지의 투자금액 반영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0년 2월)

<표-5>를 살펴보면 1999년 1억5천만 달러에서 2007년에는 약 29억 달러로 10년 동안 약 20배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1999년의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투자만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이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 정부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제조업 관련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단지 제조업에서만 발생하였을 뿐 그 규모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3년 한·인도 CEPA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 이후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업종들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특히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의 전체투자금액을 보면 약 3배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2006년 2월 인도 대통령 압둘 칼람 (Abdul Kalam)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CEPA 협상개시선언을 한 것의 영향으로 판단된다.⁵⁾ 양국의 협상개시선언으로 인도에 대한 투자 기대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투자금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2008년 발생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對인도 투자경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 이외의 업종들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다가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투자업종이 다양해지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인도로 향하는 한국의 투자는 대부분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인도 FDI이 제조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제조업 중에서도 어떤 업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투자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제조업 관련 對인도 FDI에서 어떤 분야를 전문화하고 집중해야 할지를 연구한다면 제조업종별 투자현황은 분석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다음의 <표-6>은 한국의 對인도 제조업종별 투자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5) 2006년에는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공동연구그룹 회의에서 양국 간 CEPA 체결을 건의하는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EPA 협상개시를 결정하였다. 또한 2월 CEPA 협상개시선언과 함께 3년 동안 협상과 관련된 회의가 뉴델리와 서울을 오가며 개최되었다.

<표-6> 한국의 對인도 제조업종별 투자금액 현황

(단위 : 천 달러)

| 업종/연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전체 | 12,386 | 8,277 | 6,045 | 20,583 | 3,759 | 29,469 | 81,407 | 81,789 | 256,294 | 134,509 | 81,283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3,064 | 없음 | 없음 | 없음 | 523 | 없음 | 없음 | 1,567 | 1,000 | 2,000 | 없음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없음 | 88 | 없음 | 없음 | 없음 | 0 | 없음 | 없음 | 없음 | 18 | 1,905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6,138 | 3,425 | 1,724 | 22,155 | 1,310 | 1,500 |
| 1차 금속 제조업 | 7,319 | 없음 | 0 | 420 | 437 | 36 | 57,307 | 10,302 | 9,660 | 12,248 | 2,262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 0 | 없음 | 58 | 11,620 | 267 | 1162 | 2,238 | 4,444 | 6,547 | 4,539 | 1,472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없음 | 없음 | 971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2,632 | 5,803 | 0 | 없음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없음 | 없음 | 0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265 | 4,300 | 800 | 없음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305 | 365 | 3,815 | 6,432 | 2,195 | 693 | 5,813 | 49,972 | 138,389 | 58,392 | 42,778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없음 | 230 | 1,050 | 500 | 40 | 797 | 10,873 | 8,323 | 2,695 | 1,840 | 6,174 |
| 전기 장비 제조업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156 | 1,115 | 10,626 | 562 | 134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6,012 | 0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600 | 466 | 101 | 115 | 100 | 1,468 | 698 | 609 | 53,966 | 23,712 | 4,481 |
| 가구 제조업 | 없음 | 없음 | 0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41 | 10 | 0 | 없음 |
| 식품 제조업 | 없음 | 1,130 | 없음 | 없음 | 없음 | 19,041 | 없음 | 437 | 360 | 21,408 | 20,097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198 | 없음 | 없음 | 267 | 18 | 0 | 15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87 | 293 | 없음 | 없음 | 0 | 140 |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없음 | 없음 | 50 | 618 | 없음 | 0 | 600 | 91 | 없음 | 1,459 | 325 |
| 기타 제품 제조업 | 98 | 5,998 | 없음 | 878 | 없음 | 2 | 없음 | 없음 | 765 | 209 | 0 |

※ 2009년 통계는 2009년 6월까지의 투자금액 반영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2010년 2월)

<표-6>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투자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⁶⁾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액 면에서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전체 투자금액의 약 50%를 차지하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다음으로

6)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소분류로는 가공공작기계 제조업이나 토목공사 기계장비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이 있다.

많은 금액비중을 차지하고 식료품 제조업도 최근 들어 비중이 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對인도 FDI는 주로 제조업에 치중해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분야와 장비 제조업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對인도 해외직접투자경향을 산업별과 제조업종별로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도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의 변화와 한·인도 CEPA의 발효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인도정부의 외자유치정책으로 인해 제조업의 투자가 증가했고 한·인도 CEPA의 발효로 이것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인도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의 변화와 한·인도 CEPA의 발효는 제조업 관련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VI. 결 론

지금까지 한·인도 CEPA가 한국의 對인도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한·인도 CEPA는 인도정부가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개방정책과 맞물려 한국의 對인도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기적으로는 한·인도 CEPA 논의가 시작된 2003년부터 한국의 對인도 해외직접투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의 기간 중에 전체 투자금액이 3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6년 2월 당시 인도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CEPA 협상 개시 선언을 하는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대체로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한국의 對인도 해외직접 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투자업종이 다양화되었다 하더라도 주력 투자업종은 여전히 제조업에 머물러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오랫동안 주된 투자업종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 역시, 한·인도 CEPA의 주요 공산품 양허 유형 및 철폐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용면에서 보면, 한·인도 CEPA는 해외직접투자 측면에서의 순기능과 양국간 교역량 확대 측면에서의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는 모두 해외직접투자 증대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즉, 한·인도 CEPA의 최종 합의안에 포함된 제조업 관세 양허안은 우리나라가 그 동안 체결한 여타의 FTA에 비해 현저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에어컨과 냉장고(400리터 이상), 전자레인지, 승용차 등은 아예 양허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 밖의 품목들에서도 양허유형 및 철폐기간들은 다른 협정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CEPA의 관세 인하 내지는 철폐를 통한 교역의 증대는 상당 기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對인도 해외직접투자는 더

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도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산업인프라의 구축이 실현되면 향후 인도의 제조업 시장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중국, 미국 등지에서 해외직접투자의 한계에 부딪힌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한·인도 CEPA는 2010년 이후 새로운 세계시장을 열어갈 해외직접투자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산업연구원(2009). “한·인도 CEPA 체결이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50호.
- 삼성경제연구소(2009). “한국의 對인도 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258호.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한·인도 CEPA의 주요내용』. 서울: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하상(2007).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3권, 제4호, pp. 195-214.
- 이순철(2007). “인도경제의 전망과 대인도투자.” 국제노동협력원. 『세계노사정 대표단초청 세미나』.
- 이순철·최윤정·정재완·Prabir De(2007).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중제조업을 중심으로』. 서울: 대외정책경제연구원.
- 오승구(2006). “새로운 경제대국인도.” 심포지엄 및 세미나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 정무섭(2009).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정상희·황기식·김현정(2008). “한·중·일 FTA 전략의 수렴.” 『무역학회지』, 제33권, 제5호, pp. 59-83.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09). 『수은해외경제』, 2009년 9월호.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0). 『수은해외경제』, 2010년 2월호.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0). 『인도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 Bevan, A., Estrin, S. Meyer, K.(2004). “Foreign investment location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transition economie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13, No. 1, pp. 43-64.
- Dunning, J. H.(2004). “Institutional reform, FDI an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Grosse, R.(ed.). *International Business and governments in the 21st centu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yer, K. & Nguyen, H.(2005). "Foreign investment strategies and sub-national institutions in emerging markets: evidence from Vietnam."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 42, No. 1. pp. 63-93.
- UNCTAD(2004).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Geneva: UNCTAD.
- UNCTAD(2005).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Geneva: UNCTAD.
- UNCTAD(2006).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Geneva: UNCTAD.
- UNCTAD(2007).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Geneva: UNCTAD.
- UNCTAD(2008). *World Investment Report 2008*. Geneva: UNCTAD.
- UNCTAD(2009). *World Investment Report 2009*. Geneva: UNCTAD.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user/index.asp>. (2010년 2월 4일 검색)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http://keri.koreaexim.go.kr>. (2010년 2월 3일 검색)

Abstract

Recent change in investment environments of India and its impact on inward FDI

Sun-hwa Park* · Byoung-tae Lee** · Sun-Hee Le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a change in India's foreign capital attraction policy and the enforcement of CEPA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have impacted South Korea's direct investment in India. Following the South Korea-USA FTA conclusion (April, 2007) and the South Korea-EU FTA conclusion (July 2009), the enforcement of South Korea-India CEPA on January 1, 2010 has widely opened a gigantic India market with a population of 1.2 billion people to South Korea. With regard to this good business opportun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a change in the Indian government's foreign capital attraction policy and the enforcement of CEPA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have impacted South Korea's FDI in India, especially, its investment in manufacturing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relevant data, the Indian government has -since 1991 opened its domestic product market, trade and financial sectors and guaranteed the free transfer of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y, while continuing to increase investments for building infrastructures for its weak industries. South Korea's investment in India has steadily been increasing centering on manufacturing businesses, and especially has risen rapidly since 2003 when discussions on CEPA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began. Thus, this trend is deemed to be attributable to synergies that are triggered by a change in the Indian government's policy on foreign capital attraction since 1991, as well as by the CEPA between South Korea and India.

■ 논문접수일 : 2010년 10월 29일, 논문심사일 : 2010년 12월 5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15일

* Researcher of Institute for German Studies, Dong A University

** Lecturer at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Lecturer at Faculty of Public and Police Administration, Daegu Haany University